

2008 제주 문예연감

미 술

제주의 바람을 타고 세계로...

1. 들어가면서

오늘의 미술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빠르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950년대를 시작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미술은 서구 미술의 모방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비디오아트를 선보인 백남준을 비롯한, 한국적 정서를 서구 미술과의 접목으로 눈에 띄는 작가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들의 작업은 서구 현대미술의 표현형식 속에 한국적 주제와 이미지를 담아서 서구의 작업들과 구분되는 독자성과 조형언어의 국제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환경 속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렇듯 세계미술의 흐름과 우리 미술의 흐름 사이에는 적어도 어떤 동시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 있던 각 나라의 미술을 볼 수 있으며, 국제 아트페어와 국제미술행사들을 통해 각 나라의 그림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무대를 향해 작가들은 전통과 고유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고 세계를 무대로

2. 오늘의 제주한국화

2007년 제주한국화단은 개인전, 그룹전, 협회전 및 국내외 전시와 행사 등으로 작품활동이 꾸준했던 한 해였다. 도내에서의 작품발표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도외진출과 해외교류전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의 제주미술은 국제화 물결을 타고 세계미술의 흐름에 공존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미술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변에는 기성작가들의 역량있는 작품활동과 신진작가들이 지역적 특성에서 벗어나 전통한국화의 맥을 이으며, 표현재료 연구와 주제의식이 보다 개성 있는 작품으로 새로운 창작의 열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눈에 띄게 늘어나는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있어 제주미술 발전에 한 몫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전과 다르게 작가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와 도외작가의 초대 전시들을 통해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제주미술의 거목인 양창보 화백의 타계 소식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양창보 화백은 제주의 풍광과 더불어 산수와 인물, 화조 등 열정적인 작품활동을 보여 주었음은 물론 불모지와 같던 제주 예술계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였다. 한국예총 제주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침체에 빠졌던 제주 예술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기반을 탄탄히 다져 놓았다. 제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문화재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제주의 문화예술정책에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후학을 키우기에 전념했고, 예술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실천적 생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제주한국화 분야에 서만이 아니라 제주미술을 이끌며 제주미술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이제 고인이 되고 말았다.

한 해 동안 보여 주었던 전시회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전에는 강부언, 강명지, 고은경, 김대규, 부현일, 선우경애, 양원석, 장여진, 장은철, 현덕식 등이 있었고, 협회

「한일창작회 교류전」(제주학생문화원 / 제주)이 있었다. 갤러리 찰나에서는 도외 작가로 「최한동 초대전」이 있었고, 갤러리 하루에서는 「문재일 초대전」, 기획 전시로는 기당미술관에서 2007 소장품 테마전 「의식과 재현전」과 「수묵화, 전통과 현대적 변용전」이 있었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전시회가 인상적이고 눈길을 끌었다. 「변시지 수묵화전」(1.5~1.30. / 미술관가는 길 / 서울)으로 작품 '난무'와 '이대로 떠나는 길' 2점이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전시장에 10년간 전시되는 점과 일본 광풍회전 65주년 기념 시상식을 기념하여 기획 초대전을 열게 된 것이다. '낙시', '어촌서풍일', '산책', '사색', '이야기', '환상' 등 36점의 수묵화 작품을 선보인 전시회였다. 서양화 작가이면서 수묵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볼 수 있는 이 번 전시는 변시지 화백의 예술혼과 작가의 예술적 경지를 고스란히 볼 수 있었던 전시회였다.

강부연의 「보물창고전」(1.17.~1.31. / 삼무일기)은 전업작가로서 대중과 소통을 보다 가까이 가려 했던 전시회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큰 전시회였다. 작품의 소재를 다양화하여 관객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안겨주었으며, 대중들에게 미술작품을 보다 편안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제주의 일상을 일기 쓰듯 그려나간 삼무일기 연작과 제주야생화의 화려하지 않은 깊은 아름다움, 특별로 풀어보는 십이지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또한 작품의 가격을 낮춰 작품 구입을 망설이는 관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전시회다.

장은철 작가의 「명아재 수묵화전」(9.29.~10.6.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공간)이 있었다. 작가가 근무했던 인연으로 야간학교인 제주등하학교 발전 기금모금을 위한 뜻 깊은 전시회였다. 한국화, 서예, 전각, 네일아트를 넘나드는 작가로 '바람이 머무는 자리'와 '향기를 머금은 꽃' 두 가지 테마로 나뉘어 그린 37점이 전시되었다. 부드러움과 강함, 거침과 온화한 느낌의 수묵 작품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전시였다.

그립전에서는 「이삭전」(2007.12.26.~2008.1.1. / 신산갤러리)이 있었는데 제주대학교 미

이외에도 눈여겨 볼 만한 기획전시로 기당미술관에서 열렸던 「2007 소장작품 테마전」(2.7.~4.23.)은 '의식과 재현'을 주제로 마련한 전시회이다. 현실을 재현하되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별해 한국화 14점, 회화 28점, 판화 2점을 선보였으며, 작가들도 꼭 볼 만한 전시회였다. 「수묵화, 전통과 현대적 변용전」 또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수묵화만을 골라 선보인 전시회였다. 서구 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현대미술에서 전통의 뿌리인 수묵화의 변화상을 점검하고, 현대 수묵화의 발전 경향을 가늠하게 했던 전시회였다. 이 전시는 수묵화의 변화상을 4갈래로 나눠 전시했다. 첫 갈래인 '전통의 계승'은 수묵화 전통의 생명인 남종화의 거두인 남농(南農)의 뒤를 이은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두 번째 갈래는 '현대적 변용'으로 수묵화를 추상에 접목한 실험의 결실로 맺어진 작품들이었다. 세 번째 갈래는 다시 '재현'으로 20세기 중후반 모더니즘 해체 후 구상과 비구상으로 재현된 이념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과 동양문화를 재발견하려는 흐름을 보인 전시회였다. 네 번째 갈래에서는 '자유구상'으로 형식 파괴와 자유분방함을 통해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무너뜨려 시공간의 확대를 지향하는 수묵화를 보여 주었다. 수묵화의 변화를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갤러리 전시는 도외 작가를 초대했던 전시가 눈길을 끌었다. 그 중에서 갤러리 찰나에서 열렸던 「최한동 초대전」(3.3.~3.24.)은 22번째 개인전으로 현대 한국화의 한 흐름을 보여 주었다. 그의 작품들은 원색에 가까운 강렬한 색채 속에 새싹이 돋고 꽃이 만발하는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그리고 갤러리 하루에서는 문재일의 개인전으로 「'나만의 화단 - 살아가야 하는데' 전」(2.7.~4.23.)이 있었다.

국제교류전에서는 「백록담전」(5.8.~5.12./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2전시실)으로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와 강사들과 일본의 시즈오카현에 있는 도꼬하학원대학교의 교류전이 뜻 깊게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감성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의 동양화, 드로잉, 판화, 사진,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은 그 나라의 정

3. 제주한국화의 길

매년 한국화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 작가들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래도 작가들의 꾸준한 작품 활동과, 신진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제주한국화단이 어제와는 다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전시회와 행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실험하는 것은 예술가의 몫이고, 그 도전과 실험정신은 예술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작업 활동이 아니라 전통을 알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창작의 열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요즘 시대에 국제미술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새 바람이 불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세계적인 작품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 글 / 고 은 경(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화분과위원장)

청년 정신이 아쉬운 제주미술

1. 들어가며

2007년 초 KBS에서 다큐멘터리 5부작 「미술」을 방영했는데 주제는 바로 돈의 흐름과 미술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의 흐름을 따라 미술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본주의시대에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미술보다 자본에 방점이 찍히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위한 미술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게 한다.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세계적인 컬렉터들의 관심이 몇 년 전부터 중국현대미술로 향함에 따라 중국현대미술의 소위 블루칩작가 작품은 낙찰가가 천정부지이며, 제작되지도 않은 작품을 미리 예약할 정도로 활황을 맞는 것과 맞물려 국내미술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2007년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열기는 거품현상 논의가 나올 만큼 과열현상마저 감지되고, 각종 메스컴에서도 미술품 경매시장의 현상을 보도하거나 미술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반인들에게도 미술품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동향은 2007년 제주미술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몇몇 아트마켓형식의 전시와 미술시

2007년 제주미술에 있어서 특별히 이목을 끌 만한 대형전시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도내에 새로운 전시공간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나름대로의 전시기획들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공간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등 제주미술의 움직임이 양적으로는 예년보다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서양화, 판화부분의 경우만 해도 한 해 동안 수십 건의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전시 하나하나마다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였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중 특기할 만한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이슈가 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2. 서양화

미술품 경매가 붐을 이루고 미술시장이 활황을 맞게 됨에 따라 제주에도 미술시장을 염두에 둔 전시들이 많아졌고, 제주작가들이 국내외 아트페어나 화랑미술제 등에 참가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대안공간 제주는 미술시장의 대중화를 앞세워 아트플리마켓전(2006. 12. 21.~2007. 1. 21.)과 아트옥션(1. 20.)을 가진 바 있으며, 새롭게 개관한 현인갤러리에서는 서양화가 15인 소품전인 <작은 그림 큰 마음전>(2007. 12. 22.~2008. 1. 31.)이 있었고, 탐라미술인협회의 <봄을 여는 작은 그림전>(2. 7~2. 13./ 신산갤러리)과 창작공동체 '우리'의 <각양동색전>(9. 12.~9. 22./ 갤러리 □양) 등도 작품판매를 염두에 두고 소품위주의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또한, 성격은 좀 다르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전달하고 작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후, 수익금은 다시 제주문화사랑기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4인사색전>(2. 1.~2. 10./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공간)을 마련하였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예술가들에게는 창의적인 작업환경 개선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참여 작가는 고보형, 김영훈, 문창배, 정용성이다.

이렇게 미술시장과 관련된 전시들을 기획하거나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긴 했지만 벼룩시장을 표방한 아트플리마켓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의 작품들이 아닌 경우 시장형성이 거의 안 되거나 개별적으로 아트페어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이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제주지역 자체에 대형 자본이 없기도 하거니와 대형호텔과 리조트 등의 작품매입 또한 서울지역의 화랑을 통하여 지역 외 작가들의 작품들이 유통되고, 아직까지는 제주에 미술작품 컬렉터라고 할 만한 이들이 없으며, 일반 수요자들도 작가와 인맥으로 형성되는 실정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작품과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전문화상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미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미술 향수층이 두텁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 관람객들이 미술작품과 소통하고 향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촉매자의 역할들도 필요한 시점이다.

2007년은 새롭게 태어난 전시공간들이 초대전 혹은 기획전들을 마련하면서 개인전이 부쩍 늘어났던 한 해였다. 상반기부터 여성작가들의 첫 개인전 소식들이 눈에 띄었는데, 대체적으로 꽃, 풍경, 정물 등의 편안한 소재를 가지고 여성 특유의 따스하면서도 부드러운 시선으로 작업을 했지만, 소재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구성방식에 있어서 창의성이나 신선함이 결여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유통기한」이라는 타이틀로 오브제를 통한 인간의 욕망을 풀어냈던 백유일이 디지털프린트로 「상실」이라는 타이틀의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5. 19.~5. 25./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2전시실). 1회 개인전이 물성을 강조한 오브제의 작품들이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파편화된 자신의 존재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하는 작가의 시선이 디지털 평면작업으로 나타나 있다. 주제 전달에 따른 작가의 매체 선택이 눈길을 끌며 제주에서 보기 드문 사진과 회화를 접목시킨 실험적 작업이 신선했다.

창작공동체 ‘우리’에서 진행되었던 탐라순력도 기행에서 만난 제주의 풍경과 그에 대한 단상들을 「탐라별곡」(6. 30.~7. 5./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1전시실)에 담아낸 홍성석은 그동안 ‘비생명적 문화에 대한 소고’, ‘인간, 그 존재 대한 독백’ 등 인간존재와 이를

치도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제주풍광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 것이다(10. 20.~10. 26.). 인간군상의 작업에서와 같이 풍경작업에서도 색채의 사용은 절제되었으나, 인물군상에서 선들이 거친 필치를 보였다면 풍경작업에서는 형상성에 맞춰 선들이 정리되고 한결 부드러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제주 서양화단의 커다란 버팀목이었던 김택화 화백의 1주기를 기념하는 「김택화 화백 유작전」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초대로 이루어졌다(10. 13.~10. 19./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1전시실). 한라산, 산방산, 성산일출봉, 초가, 해녀 등 제주의 풍광을 고집스럽게 기록한 화가의 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근작을 위주로 전시가 되었고, 1970~1990년대의 작품들도 시대별로 전시되어 작가의 작품세계의 변화 양상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아트스페이스·씨가 처음으로 실시한 신진작가 지원전 선정작가인 고경화의 첫 번째 개인전 「비움과 채움」(10. 15.~10. 28./ 아트스페이스·씨)은 부조리한 사회에서 느끼는 갈등, 인간의 욕망에 의해 상처입은 자연을 담아냈다. 판화, 회화, 설치 등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매체의 선택을 달리하고, 의료차트, 인조털, 나무, 담배, 새장, 비즈 등의 재료를 이용한 표현방식을 비롯해 관객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작품, 작가와 만남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작품과 작가와 관객과의 소통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기획 초청으로 마련된 강요배의 「섬 빛깔전」(11. 1.~11. 7./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1전시실)은 「제주민중항쟁사」부터 「땅에 스민 시간」의 전시에서 보여준 바 있듯, 그림을 통한 작가의 제주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전시회였다. 그는 초창기 뚜렷한 역사인식 속에서 풀어냈던 작업들이 점차 제주에 불박인 사람의 시각에서 본 제주의 자연을 관조하듯 풀어냈다. 예전의 제주자연에서 보여졌던 구체적 형상에서 점차적으로 형상을 단순화하거나 흐트러뜨리며 마치 몸 속의 기를 붓터치와 색감으로 풀어내는 듯한 최근의 작품들을 보노라면 이 다음의 작품세계가 어떻게 전개되어갈지 궁금해진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김옥지의 작품을 초대 전시한 「빛과 생명전」(12. 22.~2008. 2. 28.)

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전업작가의 길을 걷고있는 제주작가들의 개인전들이 도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중옥의 「크레파스로 만난 인연전」(5. 9.~5. 15. / 이형갤러리 / 서울)은 크레파스화만을 고집하는 30년의 세월이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과 불화에 고스란히 묻어난 전시였으며, 정년퇴임을 맞아 제주의 풍광 속을 산책하듯 편안한 그림들을 풀어놓은 고재만의 「아름다운 산책」(8. 5.~8. 21.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아트갤러리), 교육행정가의 길을 걷다 10년만에 가진 「김순관전」(10. 26.~10. 31.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1전시실)도 있었다. 이 밖에도 김정미, 김숙희, 현영옥, 김형지, 현혜정, 김성란, 신지숙, 최연재, 한용국, 김재호, 안진희, 박소, 이석중, 고순철, 김대규의 개인전이 제주 또는 서울에서 열렸다.

근래들어 개인전이 많아지고, 단체전이나 그룹전에 참여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작업하는 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전시들도 있었다. 미술의 사회적 참여라는 사명을 지니고 14년간 전시하고 있는 탐라미술인협회의 「4·3미술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4·3유적의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작품으로 끌어올리려 기획된 이번 전시(4. 3.~4. 8.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1전시실)는 답사과정이나 희생자 유해발굴, 유족들의 모습 등이 영상으로 전해져 생생함이 더해졌다. 4·3사건의 비극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놓여진 현재의 과제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미술과 사회와의 관계맺기를 해 온 4·3미술제는 4·3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예술로 승화시켜 전달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4·3사건 60주년을 맞아 미술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감에 있어서 향후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는 평화가 지킨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기획된 탐라미술인협회의 정기전 「평화-동행전」(11. 5.~11. 11. / 갤러리 □양) 또한 동아시아 평화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평화 저해의 필연성, 국가폭력과 4·3사건의 기억, 제주역사와 평화의 풍경 등의 주제의식이 작품들에 깃들어 있다.

들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기획한 점이 신선했다.

그림책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림책이 단순히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림책의 그림이 단지 글의 이해를 돕는 삽화의 수준을 넘어, 그림만으로도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이미지북의 역할을 하면서 그림책원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3년에 창립하여 그림책의 창작, 워크숍, 그림책원화전 기획, 독서교실 등의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제주그림책연구회가 그동안 도내 에프왈그룹과 공동으로 기획한 「제주가나다」, 설문대할망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은 웬 일일까요?」, 제주마을탐구인 「우리동네 무근성」에 이어 네 번째로 「하늘에 비는 돌, 조천석」 원화전을 한라아트홀 전시실에서 개최했다(12. 13.~12. 15.). 산지천의 역사와 환경 등을 토대로 창작한 글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판화작업 원화 16점이 선보였는데, 작업과정을 담은 사진들과 작업을 위한 밑그림, 판화의 원판 등의 아카이브전을 병행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작업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작업 틈틈이 그림책 원화를 그려온 김품창도 기존에 발표되었던 친숙한 동화들과 창작 동화 등에 그려졌던 원화들을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서 전시(11. 6.~11. 16.)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원화그리기 체험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전시를 했으며, 부인인 동화작가 장수명이 쓴 『내 이름은 아임소리』 등에 실린 원화들도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또한 전통설화인 바리데기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황석영의 소설 「바리데기」의 삽화전(12. 1.~12. 16. / 아트스페이스·씨)이 열렸는데, 탈북여성인 바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소설을 반년에 걸쳐 신문에 연재해 오는 동안 그려냈던 121점 중 50여 점을 가려 뽑아 전시되었다. 굳이 삽화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개별적인 이미지만으로도 작가의 감성들이 전달되는 작품들이 눈에 들어와 작가나름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2004년 제주수채화협회가 창립한 이래 수채화 장르의 꾸준한 약진도 눈에 띈다. 물감을 느낄 수 있는 수채화의 속성은 제주도의 청정 자연 이미지와 맞물려 대중적으로도 관

러리 하리에서(5. 6.~5. 14.) 열렸는데, 작가자신의 내적 세계와 연관된 주술과 의식을 표상하는 부적과도 같은 단순하고도 강렬한 이미지의 드로잉 작품들을 선보였다.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작품전인 「백록담전」(5. 8.~5. 13.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1전시실)도 일본 시즈오카에 있는 도꼬하학원대학과 국제교류전으로 열렸다. 일본화, 메조틴드, 일러스트레이션, 석판화, 드로잉, 사진, 공예 등 8인 8색 일본측 교수들의 일본정서가 묻어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의 전시를 보여주었다. 미술협회 제주지회는 「몽골미술교류전」(8. 3.~8. 8.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1전시실)을 가져 해양문화와 대륙문화라는 환경에서 나오는 ‘다름과 닮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네팔화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인 「나마스테 페스티벌」이 문화예술재단 문화공간에서 열렸는데(9. 3.~9. 17.), ‘나마스테’란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네팔어로 네팔과 한국간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네팔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만년설이 덮인 웅장한 산들과 아담한 집들과 사원, 불상을 비롯해 전통적인 축제풍경 등을 담아낸 작품 80여 점이 선보였다. 또한 일본작가인 고메타니 루리코의 기리에전인 「고메타니 루리코, 색 종이 풍경화전」(11. 21.~11. 26.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2전시실)이 열렸는데 일본어로 종이를 오려 붙인다는 뜻을 일컫는 말인 ‘기리에’는 중국에서 전해진 부적에서 유래하여 그림책원화로 주목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검은 종이를 칼로 오려 제작해 흑과 백의 조화만으로도 강렬한 효과를 내는데, 고메타니 루리코의 기리에에서는 작가가 살고 있는 산다시의 풍경을 비롯해 산방산, 성산일출봉, 한림공원 등 낮익은 제주의 풍경들이 함께 해 색다른 기법의 생소함을 감소시켜 주었다.

3. 판 화

2000년 제주판화가협회의 창립전 이후로 제주판화미술계의 활동은 타 지역의 여느 단

다」(4. 26.~5. 1./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1전시실)의 단체전을 제외하고는 전시실의 특성상 소규모로 치러지거나 판화작품만을 전시한 게 아니라 한 작가가 회화나 설치 등 타 장르와 혼합해 치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판화 개인전으로는 갤러리 하루에서 진청의 「The Inner-View전」(2006. 12. 14.~2007. 1. 14.)과 신상철의 「어른을 위한 오월 오일의 그림전」(5. 5.~5. 20.)이 있었는데, 서귀포에 새로 생긴 전시공간으로 젊은 작가의 작품들을 기획전시한다는 면은 신선했으나, 전시장이 협소하여 작가의 역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부지현이 문예회관 2전시실(6. 23.~6. 29.)과 갤러리 □양(12. 2.~12. 16.)에서 그동안 선보였던 '休' 연작의 동판화와 수묵화, 설치작품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어두운 시간에 정박해 있는 배의 모습을 통해 번잡한 일상에서의 휴식을 보여주는 동판화작품들은 마치 수묵화를 보는 듯한 작가만의 기법을 전해주었고, 전시실 벽면의 색상을 기존의 하얀 벽에서 진청과 진녹, 갈색 등으로 전시공간을 완전히 색다르게 변모시킨 점이나 전시실을 가득 채운 집어등의 설치작품 등에서 작가의 공간연출에 대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갤러리 찰나에서는 우리가 가진 반사와 투과의 성질을 이용한 작품들을 선보인 「임정은 초대전」(7. 28.~9. 13.)이 있었으며, 허문희가 전국의 청년작가들 중 한 명으로 초청되어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 빛 2007」(7. 5.~8. 5./ 광주시립미술관)에 참여하였다. 허문희는 종이판을 이용한 플라그라프 기법으로 즐거운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방' (Room) 연작의 숨은그림찾기식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감수성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부산, 서울 등지에서 초대전이 추진되고 국제북아트페어 등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오키나와 출신 목판화작가인 나카 보쿠넨의 「목판화전」(9. 2.~9. 7./ 홍갤러리)도 열렸는데,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오키나와의 자연을 강렬한 색채와 힘차고 섬세한 표현으로 연출한 목판 모노타이프 작품 8점이 선보였으며, 오픈행사 때는 목판 모노타이프 시연행사도 함께 했다.

이밖에 고정화는 핀란드 미니프린트트리엔날레에서 「메탈월드」라는 동판화로 입상해

4. 이 슈

제주도립미술관이 제주시 연동 신비의 도로 인근 건립예정지에 첫삽을 떴다.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도립미술관은 1만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2009년 1월 완공예정이다. 이에 앞서 저지예술인마을에 도립 제주현대미술관이 지상 2층 규모의 본관건물과 지상 1층의 분관을 두고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아트숍, 세미나실에다 국제조각심포지엄 야외공원,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까지 갖추고 개관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관광객들을 겨냥하여 제주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로 자리잡고자 하는 바람으로 개관했으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운 운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지역에 하루갤러리, 찰나갤러리, 김정문화회관 전시실, 감귤박물관 전시실이, 제주시 지역에도 갤러리 모양, 현인갤러리, 호갤러리 등이 개관하여 개관기념 초대전을 비롯한 기획전 등으로 제주지역의 전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한 해였다.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아트인시티 2007이 주최하고 갤러리 하루가 주관하는 서귀포 걸매 생태공원 주변의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비롯,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민예총이 주관한 「아트스케이프 2007」의 시범사업이 제주시 건입동 인근과 제주남초등학교, 서귀포시 문화공원 내에 시행되고, 제주시 이도1동 주변 벽화그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제주지역 주민들과 작가들 사이에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된 해이기도 하다.

이밖에 변시지 작가의 작품들이 위작시비에 휘말려 미술품감정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으나 우리나라 화단의 최고 작가임을 반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문예회관 공연막그림이 채기선 작가와 공연막 그림을 그린 작가와 ‘이미지 도용 논란’이 있었다.

5. 맺음말

작가나 개인전 개최가 여의치 않은 작가들에게 전시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 생겨나는 도립미술관을 비롯한 공립미술관들이 신진작가들을 위해 참신한 기획들을 하고 일반 전시공간들도 입지조건이나 규모 등 나름대로 특성들을 살려 운용한다면 제주미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다.

국내외 미술시장의 열기에 맞물려 제주작가들의 창작분위기도 활성화된 듯 보이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전시들 가운데 기존의 작업에서 크게 변화되는 양상은 감지할 수 없었고, 창작자는 많으나 창작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술시장과 맞물려 작가들의 작품이 보기에 편한 그림으로 대체하다 보니 새롭게 활동하는 신진작가나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신선하고 창의적인 내용이 점점 줄어들고 비슷한 그림들을 양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설 갤러리인 아트스페이스·씨가 의욕적으로 기획하는 신진작가공모에 올해의 공모작가가 없다는 얘기는 젊은 작가들에게 도전정신과 청년정신이 결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다.

제주미술의 다양성 확보와 활력적인 전시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문화예산 확충이나 전문인력의 운용, 도립미술관과 같은 공립미술관들이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작가들이 작품에 대한 진정성과 작가정신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해 나가는 것 역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전통과 실험, 그 경계에서

1

현대조각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조각이란 장르가 장구한 역사를 통해 확보한 전통적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표현의 다양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재료의 영역을 거의 무한대로 확대하며, 중요한 매개체인 공간에 대한 제약을 없애 준 그리고 최근에는 그 형식이 담는 담론이 중심에서 주변부로 시선을 옮겨 다양성의 시선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2007년 제주조각은 이러한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한편, 자기 혁신의 고민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단지 형식적 맥락의 실험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혁신에 대한 요구를 환기시킨다.

2

인도양 홀에서 2007 아트스타 100인 축전에 참가하였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작업방식인 동선을 잇대어 그물망처럼 엮어 대상을 표현하는 형식을 유지하며 해녀에서부터 동심의 소녀, 일상에 지친 샐러리맨까지 그만의 형식인 동선의 그물망처럼 주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8월 6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 삼양해수욕장에서는 무려 6m 30cm나 되는 대형작품, 「제주의 꽃-해녀」를 설치했다. 그는 해녀의 고향, 제주바다로 무대를 옮겨 대중과 자연 속에서 자신의 해녀이야기를 풀어갔다. 이 작품은 입체와 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설치형식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술작품으로서 대상성(감상의 대상)을 탈피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끌어들여 그 자체로 하나의 현실로 존재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제주의 꽃-해녀」를 그들의 본래의 자리에 위치하게 하여 작품의 리얼리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서성봉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1층 전시실에서 「정낭」을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서성봉은 나무, 철, 스테인레스, 유리 등 다양한 재료로 매우 절제된 작업을 선보였다. 서성봉의 조각은 제주의 '정낭'에서 그 형상이 아닌 기능을 재현했다. 그는 공간의 경계를 짓는 최소한의 형식으로써 정낭의 기능성에 주목한 듯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언어적인 의미를 전면에서 등장시키는 개념미술의 경향을 연상시키며, 미니멀 아트(Minimal Art)의 절제된 형식미와 절묘한 절충을 보여준다. 정낭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는 정낭의 내부와 외부의 최소한 경계 짓는 특징을 자신의 작품개념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공간의 소통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강민석은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주 갤러리 안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가산화랑에서 두 번에 걸쳐 테라코타 부조작품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여체의 다의적인 몸의 표정을 통해 신체가 갖는 심리적, 물리적 시·공간을 성찰적으로 실험하였다.

고봉수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큐브스페이스에서 「러셀의 집」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그의 「집」 연작은 하늘, 바다, 구름 등 자연의 모습으로 집의 외피를 감

조윤득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갤러리 찰나에서 「도자조형전」을 열었다. 조윤득의 작품은 흙이 갖는 원초적 성질에서 종교적 근원성을 찾는다. 표면이 겹겹이 층을 이루는 그의 작품은 이를 은유한다.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제주조랑말 토우전」을 연 유종욱의 작품은 조형을 해체·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흙의 원시적 질감을 통하여 작업의 의도를 더욱 극대화시킨다.

이와 같은 조각가와 도예가의 경계 허물기에서 분화된 자신들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않는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예술의 본질에 대한 천착을 읽을 수 있다.

정성실의 작품에서 ‘한지’의 조각적 재료의 가능성은 1963년 클레스 올데버그(Claes Oldenburg)가 비닐, 캔버스, 솜으로 제작한 〈부드러운 타자기(soft typewriter)〉로 연유되는 연성조각(soft sculpture)에서 예견된다.

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조각은 이미 현대조각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유행하는 듯하다. 이 지점에서 제주라는 지역적 조건이 더 이상 필연적인 폐쇄성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폐쇄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작가들의 선택에 있어서 대상의 외연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각가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고민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현시점의 제주조각의 과제이자 희망이다.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의 역할

1. 들어가며

맥커비(R. M. MacIver)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지역을 지역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이란 의미는 지리적 공간과 생활공간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적인 제반 현상간의 결합에 의해서 지역 통합이 이뤄진 동질적인 생활공간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구역으로써 그 역할을 기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표방은 그 의미가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세계속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과 문화가 다른 지방과 매우 다르며 독특한 문화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관습과 사회적 관념 등이 형성되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제주도의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 제주도의 문화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심축이며 이는 또한 역사인 것이다. 이렇게 제주 역사는 과거에 무엇이 존재하였고 현재에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무엇이 필요

통하여 제주에 디자인과 문화가 공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특별한 지역으로 발전 계승하는 길을 찾고자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과 디자인 방향

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디자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역적 특색과 고유한 지역문화는 이 시대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요즘의 문화라는 키워드에서 느끼는 범주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또한 우리들에게 변화와 욕구를 자극하는 형태로 두드러진다.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문화라는 매개체가 자리 잡고 그 매개체를 통하여 감정과 욕구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최근의 언론 매체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공공미술과 같은 움직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심과 생활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은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과 가로시설 및 도로 위주의 사업에 대한 디자인이 추진되고 있어 구조물이나 미술적 예술가치를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테마적 공공디자인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행정과 재정의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불균형이 여전하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만의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제주가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디자인은 짧은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가치창조와 경쟁을 이기는 무기로서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적 특성이 지방 활성화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에 디자인의 가치를 접목한 문화적 발전은 바로 경제적 이익과 발전의 가치로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디자인

1) 2007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문화와 공예디자인의 동향

디자인은 매우 넓은 분야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디자인의 존재가 없는 곳은 거의 없으며, 디자인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이 상품과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디자인, 산업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고 창작자들의 창의성과 문화는 디자인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노력이 산업화를 거쳐 우리의 삶과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디자인문화와 공예디자인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그 미래는 대단히 밝다고 본다.

2007 문화제주를 위한 거리의 디자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시민과 공감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공공미술은 벽화나 상징 조형물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 비디오, 공예, 장식미술 등 활용매체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러한 공공미술, 즉 공공디자인은 도시경관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분야 주요 시책 중 하나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시범지역에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미술평론가 김유정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연관된 조형물의 경우 개인 창작물을 확대했을 뿐 도시의 디자인적인 요소나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맞지 않은 작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제주도의 공공미술 사업은 이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

■ 디자인 · 공예분야 전시회

전시일자	전시/행사명	작가/주관기관	장 소	장르
1. 8.~1. 13.	手-craft전		문예회관 제2전시실	공예
1. 13.~1. 31.	이인지 초대전	이인지	갤러리 찰나	공예
1. 14.~1. 17.	원퀼트 회원작품전	원퀼트	문예회관 제2전시실	공예
2. 24.~3. 11.	아트스페이스·씨 초대 고 원종 분청사기전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공예
3. 14.~3. 20.	허은숙 개인전	허은숙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인사동)	공예
3. 16.~3. 21.	황영진 개인전	황영진	삼무일기	공예
3. 21.~4. 3.	오창윤 「제주솜다기」전	오창윤	아름다운 차박물관 (인사동)	공예
3. 29.~4. 1.	허은숙 개인전	허은숙	제주도예촌	공예
4. 8.~5. 9.	리본&옹지 승마클럽 개장 기념 유종욱 초대전	유종욱	리본&옹지 승마클럽 하우스	공예
4. 26.~5. 1.	오자경 장신구전	오자경	문예회관 제2전시실	공예
4. 27.~5. 6.	제주문화예술재단 창립 6주 년 기념 「제주 옹기와 도공 들의 삶」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공간	공예
5. 1.~5. 5.	정미진 패션&텍스타일	정미진	갤러리 하루	
5. 23.~5. 28.	세심재갤러리 오순택 초대전	오순택	세심재갤러리	공예
6. 6.~6. 10.	제4회 퀼트박스 회원사	퀼트박스	문예회관 제2전시실	공예
6. 12.~6. 17.	공예협동조합 2007제주특별 자치도관광 · 민속공예품공 모대전	공예협동조합	문예회관 제1전시실	공예
6. 18.~6. 22.	김미형 도예전	김미형	문예회관 제2전시실	공예

미술 / 디자인 · 공예

전시일자	전시/행사명	작가/주관기관	장 소	장르
8. 18.~9. 12.	강명숙 금속공예전	강명숙	갤러리 하루	공예
8. 24.~9. 2.	제4회 제주시각디자인협회전	제주시각디자인협회	제주국제평화센터	디자인
8. 25.~9. 9.	오창윤 개인전	오창윤	오엠갤러리(일본)	공예
9. 1.~9. 8.	제주도예가회 제6회 정기전	제주도예가회	저지문화마을 선장헌	공예
10. 2.~10. 8.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 졸업전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신산갤러리	디자인
10. 23.~10. 29.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전공 멀티미디어디자인 졸업전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신산갤러리	디자인
11. 1.~11. 5.	제주한라대학 시각디자인과 졸업 전시회	제주한라대학 시각디자인과	한라아트홀 전시실	디자인
11. 3.~12. 15.	이현정 제17회 개인전	이현정	박여숙화랑 제주	공예
11. 13.~12. 14.	조윤득 도자 조형전 '나를 찾아서'	조윤득	갤러리 찰나	공예
11. 15.~11. 20.	2007 제2회 제주디자인대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1·2전시실	디자인
11. 20.~11. 26.	제4회 멀티미디어 디자인전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신산갤러리	디자인
11. 28.~12. 4.	제4회 문화조형디자인전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신산갤러리	디자인
12. 5.~12. 9.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제10회 회원전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공간	공예
12. 15.~12. 23.	흙두드림전	돌가마도예연구소	가시리 갤러리 흙담	공예
12. 26.	제11회 도예워크숍	제주도예촌	제주도예촌	공예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성장동력에 날개를 다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옥외광고 디자인과 공공 디자인

2007년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더욱더 소중한 중요해진 제주의 자연경관은 그 빼어난 관광지로 세계속에 자리매김된 한 해였다. 이는 자연경관의 우수성과를 비롯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중대한 계기로 생각된다.

특히 새로운 생태도시 개발과 도시환경의 변모를 추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환경 개선과 신시가지의 새로운 시범거리 조성 등 여러 각도로 환경디자인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도시환경의 시스템적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옥외광고 종합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그 발전의 기준을 세우고 옥외광고물 조례정비를 통한 옥외광고물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정비하였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은 도시환경 개선과 국제화된 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옥외광고물의 개선과 정비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옥외광고는 옥외광고관리법에 의거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은 관련법규가 서울특별시의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조례를 전국에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제주의 모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광고물과는 거리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게 됨에 따라 주 매체는 빌보드, 옥상광고(네온싸인, 파나플렉스), 뉴스속보판(LED) 등 대형매체로 상징성이 뛰어나 주로 기업의 사세 과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기업로고나 대표적인 브랜드 고지 등에 활용된다. 보조매체는 공항 및 터미널광고, 고속도로광고, 교통광고(지하철, 버스, 철도), 스포츠광고, 기타광고 중소형규모의 매체로 주로 브랜드고지에 활용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아볼 수 있겠다. 번영로와 자유로 그리고 남조로 등의 도로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된 도로 간판의 정비는 도로의 환경개선과 제주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의 이미지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간판의 위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과 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작아서 표식으로써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디자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통하여 해결되리라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광고물을 통하여 외국관광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내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한층 성숙해지는 제주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하드웨어측면에서 환경조성을 하고 있다. 우선 내국인이 주로 찾는 공항, 항만, 관광지, 주요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목적광고물 143개소에 신비의 섬 제주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표기하여 제주도민의 친절함과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점차적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용이 잦은 향토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간판이나 메뉴판에도 외국어표기를 권장토록 권장하고 업종에 따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안을 간판에 삽입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원하는 업소 등을 불편함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절 이미지 확산과 고객만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촉진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디자인

가. 디자인정책에 대한 시각

디자인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최후 승부처이다. 디자인은 기술개발에 비해 투자는

인정책이 더욱 부각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디자인산업은 제주도가 추구하는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에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관련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광주, 대구, 충남, 강원)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환경디자인개선과 전시/진흥류에 주력하고 있으며 디자인 기반 조성류 사업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련 사업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자인 기반(infra)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기반조성류 사업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련사업이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 정책과 관련된 핵심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역시 수도권(경기)에 위치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지방에 비해 정보획득과 인력 수급이 활발하다. 이미 디자인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디자인 분야가 낙후 되어있는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과정 중 디자인개발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다양하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역시 국가환경디자인 개선과 전시/진흥류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매칭펀드 형식이 주를 이루며, 디자인 기반 조성류의 사업이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활발하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가환경디자인 개선 사업은 수도권 지자체의 것과 비교했을 때 규모와 예산이 큰, 마을단위의 종합 개선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고 디자인에 대한 뚜렷한 방향 및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디자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매칭하는 식의 대규모 생활환경 개선, 관광지 개선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은 디자인 인프라가 취약해서 디자인 정책 수행을 위한 여건조성의 핵심과제로 인프라 구축사업(지방 디자인기반 조성)에 높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디자인 전문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

로 지자체 형편에 따른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여 편향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디자인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인 경우, 디자인관련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RDC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디자인 사업을 계획·시행하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관련 예산을 받아도 사업소나 자치구로 배정하는 형편이라 지역 정체성을 대표할 만한 통합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자치구 중심의 특성화 사업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

광주와 같이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모토가 확실한 지자체가 일부 존재하나 많은 경우 문화진흥류, 환경·경관개선류의 하위사업 혹은 부분지원인 경우, 즉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는 사업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독립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실시하거나 디자인 부분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큰 사업의 서브사업으로 혹은 일부분으로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 관련 정책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건축, 환경, 문화, 관광, 경제통상 등 여러 분야에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한 채로 분산되어 있다. 사업구성별 측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은 국가 환경디자인 개선 및 전시/진흥류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디자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사업개발 및 집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디자인 정책이 지자체의 확고한 정책(사업)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기보다는 지자체장의 개인적 비전과 시각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며 디자인행정 전담조직도 취약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의 교체에 따라 정책과 인력이 수시로 교체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디자인 행정의 내용 및 수준은 매우 일천한 수준이며 인천·광주·대구·부산 등 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디자인 관련 행정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밖에도 대부분 업무가 도시환경 개선, 가로정비 등 기존의 행정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디자인분야 인력의 참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며, 지역의 중소·영

나. 제주 디자인산업의 문제점

제주도디자인업체(전문회사)들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디자인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자들의 고정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는데 디자인이 현재 투자를 실행한 만큼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식들은 디자인은 마치 끼워팔기를 할 때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생각이 의식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쇄 하나를 제작할 때 디자인전문회사에 디자인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소에 의뢰하여 제작을 하는데 인쇄소에서는 디자인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디자인회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 덩핑 등으로 디자인전문회사의 성장과 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디자인 회사들이 영세성과 전문성이 갖춰져 있지 않고 백화점식 디자인 영역을 담당하므로 전문디자인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직률이 높아지고 일은 있으나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전략사업 중 하나인 IT산업분야의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의 수요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관광 및 농수산 가공물의 상품화에 따른 시각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주디자인산업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정 농수산식품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의 개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타 지역에 비해 제주라는 브랜드만 가지고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디자인의 개선과 부가가치 창출의 노력 없이는 효과적인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최고상품에 대한 디자인개발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생산자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내 디자인전문회사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수정으로 제주도내 관 발주 프로젝트에 관한 도내 참가업체 확대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의 대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효과적인 디자인 전략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자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디자인 저변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예산투자를 토대로 디자인 기술개발, 디자인 인력양성 등 다양한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이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디자인 역량이 디자인 선진국의 80%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자치권의 대폭이양과 더불어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때 디자인의 역할은 향후 진행될 여러 부분의 결과물에 보다 혁신적이고 아름답고 쾌적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도시의 환경과 도시경관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쾌적한 도시의 경관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가치 창조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와 지역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자인 가치 변화의 원인은 기술, 관념, 사회제도, 문화, 인간적 속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며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특유의 의지, 사고, 미의식, 기술, 행위 등과 같은 주관적 역량의 결과물이다.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디자인 자체의 특질 외에도 여러가지 서로의 상호관계 속에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자연을 고려한 생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디자인은 새로운 시도이며 아름다움과 경제성을 겸비한 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디자인이 주는 무형 유형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경관 디자인의 역할은 청정자연환경과 더불어 창출되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가치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예술적 가치를 둔 디자인 개혁이 도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고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어지

제주도의 미술 현황

1. 들어가며

미술은 조형예술로써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들어 '미술'을 대신하여 '시각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그것은 탈장르, 탈형식, 탈매체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이나 공연 형식의 살아있는 퍼포먼스, 설치 프로젝트 등 현장성을 점차 강조하고 있는 현재 미술계의 상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전시 중심에서 벗어나 관객을 찾아 나서는 일이 낯선 풍경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장르를 구분하여 올 한해 제주미술 전반을 기록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올 한해 제주도의 미술 현황을 분석하되 각종 미술체험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시 등을 제외한 '예술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전시의 분류는 개인전, 단체전, 소장전, 기획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최 장소에 따라 도내, 도외, 국외로 구분하였다. 개최지는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국외로 구분하였으며, 월별 전시 분류는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전시장별에서만 월별 변화 추이를 구분하였

로 따로 구분하였으며 소장전, 기획전, 공모전 등은 따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2. 2007년 미술계의 변화

2007년 우리나라 미술계의 변화된 양상을 전시와 관련해서 보면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전시공간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들 수 있다. 김달진 미술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를 인용하면 새로운 전시공간은 2000년 32개소, 2001년 23개소, 2002년 26개소, 2003년 38개소, 2004년 49개소, 2005년 51개소, 2006년 63개소, 2007년 107개소가 개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제주에도 10여 곳의 사설 갤러리가 선보였다. 사설 갤러리를 이용한 전시는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나름대로의 기획력으로 대중과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본다.

두 번째로 미술작품의 전시와 유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작가들의 작품 발표를 통한 대중과 소통 방식은 비엔날레에서 아트 페어로 그리고 옥션(경매)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옥션에서는 1회 경매 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시대를 열었다. 이는 비엔날레가 갖는 비상업성이 상업적 성격으로 미술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때문에 대형 인기 작가에게 초점이 모아지면서 여전히 생계를 우려하며 작품활동을 하는 수많은 작가들을 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예술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의 관계에서 작가나 관객은 어떻게 이를 조율하고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갤러리를 포함하여 30여 곳에 이른다. 이러한 사설 갤러리들은 대형 갤러리가 갖지 못한 소규모 갤러리의 장점과 특징을 살려 관객층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소형 갤러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는 전략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전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총 223회의 전시 중 도내전시는 159회(71.3%), 도외 및 국외 전시는 39회(17.4%), 기타(미술행사) 25회(11.2%)로 2007년 기타(미술행사)를 제외하고 도내외에서 이루어진 전시행사 총 198회 만으로도 2006년 전체를 포함한 전시 횟수 총 168회를 넘어섰다.

성향별로 살펴보면 총 223회의 전시 중 개인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회(45.5%)로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뒤를 이어 단체전도 86회(38.16%)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각종 전시 관련 행사들이 많았다는 것이 올해의 새로운 특징일 것이다(<표 1> 참조).

<표 1> 성향별 전시 현황

성향	개인전	단체전	소장전	공모전	기획전	수상	행사(기타)	계
횟수	102	86	5	3	2	9	16	223
비율(%)	45.5	39	2.2	1.3	1	4	7	100

장르별로 살펴보면 한국화 분야는 침체한 반면 서양화, 공예 분야에서 부쩍 많은 전시 활동이 이루어진 해였다. 또한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형태인 '회화(종합)' 분야와 미술관련 행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표 2>).

지역별 전시 분포를 보면 도내에서 159회(71.3%)의 활동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도외 및 국외 지역에서는 총 39회(17.4%)의 전시활동 중에서 서양화 28회(18%)와 한국화 11회(28%)로 나타났다. 또한 미술관련 행사도 16회(41%)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6년 전체를 포함한 전시 횟수 총 168회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전년 대비 장르별 전시 현황

장 르	한국화	서양화	조소	판화	공예 (도예)	디자인	설치	회화 (종합)	기타(행사 · 수상 등)	계	
횟수	2006	34	43	7	6	17	11	1	49	·	168
	2007	24	65	11	6	26	10	2	49	30	223
증감	-10	+22	+4	0	+9	-1	+1	0	+30		+55

〈표 3-1〉 2007년 미술전시 현황(권역별 기준)

개최권	도 내	도 외	국 외	기타(행사·수상)	계
횟 수	159	32	7	25	223
비율(%)	71.3	14.3	3.1	11.2	100

〈표 3-2〉 전년 대비 도외 및 국외 전시 현황

지 역	도 외							국 외					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스위스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몽골
횟수	2006	21	2	2	2	1	1	1	4	3	1	1	·	40
	2007	30	·	1	1	·	·	·	2	3	1	·	·	1

개최 장소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전시실이 활용도가 가장 높은 58회(도내 전시회 159회의 36.6%)로 전년 63회(전년 도내 전시회 128회의 49.22%)와 전시회 횟수로 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도내 전시 중 가장 빈도가 높다. 그 반면 비율 면에서 49.22%에서 36.6%로 줄어든 이유는 최근에 생겨난 소형 전시실들이 많아지면서 전시 장소가 이동했기 때문이다(〈표 4-1〉).

장 소	서 귀 포 시								총계 (도내)
	갤러리 하루	김정 문화 회관	갤러리 찰나	서귀포 여성 문화 회관	기당 미술관	제주 도예촌	기타	소계	
횟 수	9	8	6	5	3	1	12	44	159
비율(%)	5.7	5.0	3.8	3.1	1.9	0.6	7.5	27.6	100

개최지별로 보면 한 해 동안 도내 전시는 제주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115회(72.4%)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44회(27.6%)로 약진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서귀포 지역에서 갤러리 하루와 같은 소형 전시공간들이 생겨나 나름대로의 참신한 기획을 선보이고 있어 이 지역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표 4-1〉).

월별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하반기(특히 10월과 11월) 들어 개최 빈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표 5-1〉).

〈표 5-1〉 도내외 개최 월별 전시 현황(전시 개시일)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횟 수	14	12	17	14	17	15	15	13	14	27	23	17	198
비율(%)	7.1	6.1	8.6	7.1	8.6	7.6	7.6	6.6	7.1	13.6	11.6	8.6	100

개인전에서 월별 전시 현황을 보면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도 3월과 10월에 가장 많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표 5-2〉).

〈표 5-3〉 단체전 월별 전시 현황(전시 개시일 · 도내외 전시 기준)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횟 수	3	3	4	9	6	6	9	4	9	14	10	9	86
비율(%)	3.5	3.5	4.7	10.5	7.0	7.0	10.5	4.7	10.5	16.3	11.6	10.5	100

도내 전시장에서 개최된 전시를 월별로 구분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과 신산 갤러리 등의 전시의 흐름을 보듯 10월부터 12월에 집중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5-4〉 〈표 5-3〉에서 보듯이 개인전이나 기획전보다는 단체전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많이 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도내전시가 주로 10월 이후에 많아지는 데 반해 2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가 전시를 기피하는 시기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는 봄철과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4〉 도내 전시장 월별 전시 개최 현황(전시 개시일 기준)

지역	장 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제주	제주도 문예회관	5	3	4	7	5	8	6	4	1	8	5	2	58
	제주문화 예술재단	.	1	.	1	.	.	1	.	2	.	.	1	6
	신산 갤러리	1	1	1	.	1	2	4	2	12
	라마다 갤러리	2	1	1	4
	아트	.	1	.	.	.	1	.	.	.	1	1	1	5

지역	장 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서귀포시	갤러리 하루	2	1	1	1	2	·	1	1	·	·	·	·	9
	김정 문화회관	·	·	·	·	·	·	·	1	1	2	1	3	8
	갤러리 찰나	1	·	2	·	1	·	·	·	·	·	1	1	6
	서귀포여성 문화회관	·	·	1	·	·	1	·	·	·	1	2	·	5
	기당 미술관	·	1	·	·	·	1	·	·	1	·	·	·	3
	제주도예촌	·	·	1	·	·	·	·	·	·	·	·	·	1
	기타	1	1	1	2	4	·	3	2	3	4	4	4	29
계		12	10	11	11	13	13	11	9	10	21	20	18	159
비율(%)		7.5	6.3	6.9	6.9	8.2	8.2	6.9	5.7	6.3	13.2	12.6	11.3	100

4. 전시와 공간에 대한 단상

전시와 공간에 대한 단상

전시의 주체자인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관객에게 확연히 보여주는 방법으로 개인전을 들 수 있다. 개인전은 다른 전시에 비해 자신만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매력이 있다고 작가들은 믿는다. 그러나 전시가 끝나면 작가에게는 빛과 도록

술의 메카를 꿈꾸기 위해서는 대형 전시공간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제주미술제」를 그 예로 보더라도 근 20년 동안 그다지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시공간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대형 전시공간을 설립해야 하고 대형 전시를 유치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시공간 확충은 곧 새로운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5. 나오며

예년에 비해 미술계에 대형사건이 많았던 한 해였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신정아의 학력 위조, 미술품 위작, 그리고 미술대전과 관련한 미술계 인사들의 구속사건 등 미술계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얼마나 학력 위주, 간판 위주의 세상에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이며 현실이 아닐까.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예술 환경 속에서 우리 미술계는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를 답습하고 소위 유행하는 양식의 수용에만 급급한 나머지 본질은 잊어가고 관객들에게서 점점 외면당하고 있다.

진정한 작가라면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한 미학적 분석과 올바른 비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변화가 아닌 답보나 퇴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한편 과거 정신의 추구가 진정한 변화나 진보가 될 수는 없는지 자신의 작품과 가치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서 출발한다는 너무도 단순한

2008 제주 문예연감

서 예

서예 교육의 필요성과 변화 방안

1. 머리말

21세기 우리사회는 첨단 미디어산업과 가속화되는 세계화로 해체되어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은 허망하게 사라지니, 가치관의 혼란과 이기주의 팽배, 도덕성 결핍 등 사회 불안현상을 보이고 있다. 슈바이처가 “전통은 존중되고 학문은 진보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나, 온고지신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보더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모든 것이 전통적 가치의 보존과 토대위에서 발전해야만 비로소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우리는 외래문화를 폭넓게 배우면서도 우리문화의 특징을 버리고 외래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오히려 외래문화를 우리 풍토 속으로 알맞게 토착시키는 주체적 문화수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에 있어서도 전인교육과 생애교육으로 인간의 고결한 성품을 함양시키고 국민도덕의 순화가 되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서예는 문자를 대상으로 하여 미술적 조형을 창조하는 예술이다. 민족적 예지와 인격

2. 서예교육, 왜 필요한가

가. 첫째는 인성교육이다.

오늘날 정서함양의 기회가 거의 없고 입시위주의 현실속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서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좋은 인성교육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서예는 자신의 심성과 성격, 인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정신적 여유와 정서적인 수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외부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데 있다.

나. 둘째는 정신교육이다.

후기산업사회의 물질만능과 정보사회 속에서 정보와 지식의 만능주의는 개인주의의 극단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게 하였으며, 인문학과 기초학문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서예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여유와 정신적인 통일을 통한 정서교육의 의미를 이어갈 수가 있다.

다. 셋째는 전통문화의 이해를 들 수 있다.

민족의 주체성을 내포한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서예교육이야말로 선조들의 품격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적 전인교육이다. 서예가 모든 전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근접하게 생활화되어 왔으며 그 배경에는 역사와 철학사상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거나 기능적 연수 감상과 이해를 통한 교육효과는 우리문화의 정체성과 이어지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중국이나

아래나 위로 향한 획과 평평하고 바른 획을 움직여 맥이 서로 연결되게 구상한다. 이렇게 뜻이 붓보다 먼저 있게 한 연후에 글을 써 내려가는데, 한 번 그은 획은 가감이나 첨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마. 다섯째는 창의력이다.

사람의 욕구에는 본능적, 생리적, 심리적 욕구가 있는데 이 중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취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자아충족, 정서적 안정, 개별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개방성과, 독창성을 길러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외부에서 이뤄지는 각종 활동이나 성취보다 오히려 내면의식에서 느끼고 구성하는 감정과 의미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바 서예는 자기 내면의 표현이나 자아완성의 길이다.

3. 제주서단의 활동

가. 개인전

소암 현중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주와 서울에서 소암의 작품세계와 생애를 기리는 전시회가 이어졌다. 「서귀 소암의 삶과 예술-먹고, 잠자고, 쓰고전」(5. 30.~6. 10.)이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막되었다. 예술의 전당과 소암 현중화 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특별전은 “소암을 지방작가로 치부하여 덮어두기에는 한국서단의 손실이 너무 크다.”는 기획의도에서 보듯 소암 예술의 성격과 한국 근·현대 서예의 역사적 전개 맥락에서 그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박민자, 고영진이 대불대학교 조형문화과에서 서예를 전공하여 전공이 다른 7명의 동기생과 함께 부스전을 통한 졸업전시를 가졌다. 고성호, 김경국, 조용옥이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3인 부스전을 열었다. 김선영은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서예전공석사청구전을 겸한 부스전으로 동북아시아 아트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일본 유슈서일본컨벤션센터(2. 24.~2. 28.)에서 열렸는데 15점의 작품에 다양한 서체로 격언과 한시를 담아냈다. 고상률 첫 개인전이 서귀포학생문화원(6. 8.~6. 13.)에서 열렸다. 한문오체와 한글고체, 전각 등 30여 년의 여정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7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윤덕현 첫 개인전(3. 23.~3. 27.)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김명희가 월간서예 문화가 주최한 제1회 서예문화축전 부스전에 참여하였다. 서각인 강영자는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첫 개인전(7. 24.~7. 27.)을 열었다.

정우팔 개인전(9. 20.~9. 24.)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있었다. 김상현이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 월간서예문인화가 주최한 부스개인전에 참여했다. 문인화가 양남자 개인전(9. 25.~9. 30.)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가졌는데 60여 점의 작품 속에는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원초적인 상태에서 자연을 접하듯한 신비감이 넘치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나. 단체전

서예전시회를 열어도 전시장이 한산하고 서예학원도 찾는 사람이 예전같지 않다고 한다. 컴퓨터문화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과연 서예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떤것일까, 2007년 한 해의 단체전을 되돌아보기로 한다.

제주 서각학연구회 주체로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고(2006. 12. 31~1. 5.), 탐라서각연구회가 3번째 전시 「전통과 현대서각의 만남전」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가졌다(1. 6.~1. 11.). 이문서회와 중국 남경예술학원 교류전(2. 3.~2. 8.)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

서 예

상목회 서예전(3. 28~4. 2.)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회원 37명이 55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제주문인화연구회전(5. 2~5. 6.)이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소박함과 자연미를 담아낸 20여 명의 작품을 전시했다.

제주도서예학회가 최초로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로비에서 제13회 회원전(5. 4~5. 10.)을 열었다. 서예가 좀 더 대중과 가까워지고 호흡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벌여 참신한 기획전시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소목회가 학생문화원전시실에서 회원전(5. 16~5. 20.)을 가졌다. 특별한 주제는 없으나 서예를 통한 인격수양과 인간됨을 강조한 소암 현중화 스승의 유지를 받들고 있다.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와 광주광역시지회가 함께 한 「제주-광주서예교류전」(5. 26~5. 31.)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려 서예, 문인화, 서각 등이 선보였다.

故 해정 박태준 추모전(6. 24~6. 29.)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제주서단을 풍성하게 일구며 행, 초서의 참 맛을 느끼게 하였던 고인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영주연묵회 회원전(7. 12~7. 17.)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부 회원전(7. 17~7. 22.)이 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다.

한라서예학회가 「왕 방 갑서」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전시회를 열어 서예, 사군자, 수묵화 등 30여 점을 표선면, 성산읍 고성리, 수산1리에서 각 6일씩 순회전시를 하였다.

서귀포소목회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회원전(8. 16~8. 20.)을 가졌다. 소암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모의 정을 표현하는 전시라 감회가 새로웠다.

제주문화원에서는 「제13회 제주작가초대전」(8. 21~8. 25.)을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에서 열어 제주서단에서 활동 중인 서예인 54명이 출품하였다.

탐라서각연구회가 제주국제공항로비에서 회원전(7. 7~7. 11.)을 가졌다.

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국제서각대표작가전」(10. 15~10. 19.)을 열었다.

열렸다.

송악서각회에서는 대정읍 농협전시실에서 제5회 회원전(4. 25.~4. 28.)을 개최하고, 이 중섭거리초대전, 방어축제전시, 국제 차문화대회 서각전시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 해외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지구촌 세계미술의 소통전」에 서예가 강창화, 전통명장 유영민, 서각인 안신자, 현승호, 윤형근, 강종환, 김영백, 좌영희 등이 참여하였다.

제주도서예학회에서는 중국 중경과 교류전을 중국 중경 조천문화예술센터에서 개최하였다(8. 25.~8. 27.). 개막 후 간담회에서는 양국간의 서예 전반에 관한 난상토론을 가져 한중간의 서예를 상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현지 신문에서는 1면 전체를 할애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라. 공모전

우선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 앞서 전국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을 살펴보고 지방 공모전과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에서 열리는 공모전에는 한국미술협회의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한국서예협회의 대한민국서예대전, 한국서가협회의 대한민국서예전람회를 비롯한 유사 공모전이 한 해 170건에 이른다. 예술의 전당 서예관 큐레이터에 의하면 이보다 더 확대되어 크고 작은 공모전이 2~3백 개에 이른다고 하니 과히 공모전 춘추전국시대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많은 공모전이 개최되니까 진정한 작가등용문의 역할은 상실되고 상의 남발 때문에 실력이 걸맞지 않은 자질부족의 작가를 양성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착실히 수업

가 나온다. 물론 이 중에는 공모전의 권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도 있다.

□ 도내 공모전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한 제33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에서 행·초서를 출품한 조순신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우수상 1명, 특선 40명, 입선 58명이 입상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문인화부문이 서예부문에서 분리 개최되어 그동안 서예의 한 부문으로 인정되어왔던 문인화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문인화부문에서는 대상작은 없고 우수상 박경석, 특선 13명, 입선 18명이 입상되었다. 입상작은 각 부분별 4부로 나뉘어 문예회관 제1, 2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8. 27.~9. 19.).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부에서 주최한 제14회 제주도서예대전에서는 총 138명의 응모자 중 한숙희 대상, 우수상 2명, 특선 34명, 입선 128명이 입상작을 냈다.

제주도한글사랑모임에서 주최한 제6회 한글사랑서예대전에서는 163점이 입상하였는데 대상인 한글 으뜸상에는 서울 거주의 권미혜에게 돌아갔는데 한글맞춤법이 틀린 것이 뒤늦게 밝혀져 수상을 취소하였다.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서예학회가 주관한 제7회 추사서예대전에서 이용훈이 대상, 우수상 1명, 특선 22명, 입선 98명이 입상하였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한 현장 휘호대회이다.

□ 도외 공모전

- 제13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 고경애, 김성희, 김예춘, 이용훈, 한애옥이 특선하였고 고영대 등 14명이 입선하였으며 박미순이 삼채상을 받았다.
- 제5회 환경미술대전에서는 손효만이 서각에서 우수상, 김관석, 홍은숙이 각 서각과 한문에서 입선하였다.

- 제11회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에서는 우수상에 이혜진, 은상에 박미순, 박용훈, 송원준, 양은아, 동상에는 고영대, 홍성직, 특선에 성정자, 양지임, 송복조가 입선하였다.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는 전각부문에서 고영진, 한글부문의 최명자가 특선하였고, 김선영, 박민자, 양희순, 김수길, 오금립, 장기봉, 이동화, 최명선, 이경주, 김정연, 김성배가 입선하였다.
- 제4회 서예문화대전에서 홍성홍이 특선하였다.
- 통일서예대전에서는 서각 최고상에 손효만, 우수상에는 백경용, 변현정, 특선에는 양복희 등 16명이고, 김은아 외 18명이 입선하였다.
- 제21회 대한민국새천년서예문인화대전에서 김선영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 제23회 무등미술대전에서 김경훈 특선, 양희순, 이용훈, 김성희, 양은아, 박미순, 이혜진이 입선하였다.
- 제23회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에서 현순호가 서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병동 전통미술 대상, 강옥춘 삼체상, 김금숙, 문영진, 전윤희가 특선을 받았다.
- 제28회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에서 좌영희가 서각장려상을 받았으며, 제28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에서 윤형근이 서각으로 대상을 수상하고, 예술대제전에서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 기 타

김선영이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소정의 점수를 획득하여 초대작가가 되었고, 유영민은 대한민국전통미술협회에서 「대한민국 전통명장」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제주도서예학회에서는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오지마을을 찾아 문화체험교실을 실시하였다. 신도1리, 영락리 무릉문화의 집에서(6. 24.~7. 14.) 한글, 한문서예의 체험, 문인화 체험, 서각, 탁본과 어린이한문서당교실을 운영하고, 회원작품을 전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창적인 예술인만큼 서예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된 예술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서예를 교육계는 올바르게 인식하여 독립과목으로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서예를 공교육현장으로 재편성하여 학문적, 기능적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 대학과정에 서예학부를 신설하여 서예학의 학문적 연구정립과 교육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기능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사무소나 문화센터 등에서 연수하는 일선지도자의 재교육시스템을 개설 운영하여 인맥 혹은 적당하게 선정되는 일선 지도자의 자질을 실질적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선지도자의 자질이 규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도에서 벗어난 기체나 속서가 횡행하게 되어 품성도치라든가 정신면에서 소홀하게 되면 서예의 본질마저도 오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선지도자의 교육자질을 향상시키는 연수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5. 맺는말

2007년도 서예전시는 일부 단체전과 사숙간의 회원전 등으로 특색있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전시회가 드물었다.

전통서예로 보자면 범의 본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근거가 빈약한 경우라든가, 창신적 현대서예를 표방하면서도 서예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서구미술의 기법을 서예에 도입한다든가 원색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사회가 날로 서구화, 과학화되어 우리 미감이 모두 서구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컴퓨터의 발달로 쓰는 행위 자체가 소멸되어지는 상태에서 놓이지 않을까 하는 마당에 서예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예 하는 사람 모두가 확실한 전문적 작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서예가만이 흡입력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런 일선 교육

2008 제주 문예연감

사 진

사진은 또 하나의 눈

천재 음악가로 칭송받는 스티비 원더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시력의 상실을 보상하는 천재적인 음악성과 청력을 가진 그는 만 13세가 되기도 전에 음반을 내어 신동이란 소릴 들었다. 그 이후 가수, 편곡자, 연주가로서 만능 탤런트를 발휘하며 최고의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그가 쉰의 나이에 이르러 눈 수술을 자청하기 이른다. 오랫동안 시력을 잃은 상태여서 시신경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15분 정도 볼까 말까 하다는 의사의 말에도 수술을 고집하는 스티비 원더. 이제 와서 왜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는 의사의 물음에 그는 대답했다.

“잠깐이라도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실패하여 그는 결국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빠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줄 아는 딸을 차마 실망시킬 수 없어 잠시 보이는 척 했다는 그의 이야기가 더 가슴을 아프게 한다.

우리가 즐기는 오감(五感) 중에서 가장 집착하는 것은 아마도 ‘보는 즐거움’일 것이다. 여행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바로 ‘보는 즐거움’으로 시작 되는 건 아닐까.

1. 제주사진의 흐름

사진사 초기의 회화에 대한 일방적인 추종의 과정을 거쳐 사진은 오랫동안 회화의 주제와 방법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메타포로써 사진 이미지의 미끌미끌한 표면성과 차가운 재현성이 주목받게 되면서, 현대미술에서 양자의 크로스오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도 오래다. 두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의미도 없다.

최근 디지털 테크놀지는 어두운 암실, 화학약품과 같은 까다로운 기술적 제약으로부터 사진을 밝고 자유로운 이미지의 세계로 풀어놓았다고 말한다. 170여 년이 지난 지금, 사진술은 화가의 붓이나 물감과 마찬가지로 사진가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실현시키는 도구로써 한 단계 더 진화했다. 이것은 사진이 숙명적으로 이어져 있던 물리적인 현실세계의 고리를 풀고, 상상과 허구의 세계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사진계도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작업이다. 필름카메라를 고집하고 있는 필자 역시 많은 사진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이미 디지털카메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시대의 대세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느끼면서도 짧다면 짧은 시간에 너무 빠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제주의 기존 사진 동호인들 대부분이 디지털카메라로 바꿨거나 아예 디지털카메라 클럽 창립이 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다.

옛날 어두운 암실에서 흑백사진작업을 하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에서 사진작업을 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사진가들은 어떤 느낌과 어떤 사실을 보고 어떤 감정으로 사물을 표현하고 있는가, 또 ‘사진은 사진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한다. 왜 ‘사진을 사진이어야 한다’고 말할까. 현재의 사진은 사진적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디지털사진이 탄생하면서 과거 흑백시대 사진의 향수일까? ‘사실이 없다면 예술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 예술가

그렇다고 디지털사진이 사진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디지털을 너무 지나치게 이용하여 사진의 본래 뜻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일 뿐이다. 사진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지금의 사진을 보며 '일부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아무나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고생하지 않아도 좋은 경관사진을 얼마든지 자기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남의 사진 속에서 조금씩 떼어다 사진을 만드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진도 한 장르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하는 사진작가들이 우리 사회의 대단한 작가라고 나서는 현실은 과거 '사진은 그냥 한 장 얻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슬픈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시대적 변화, 기술적 변화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치자. 그러나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사진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진가들의 '제3의 눈'은 아무리 시대와 기술이 변한다 하여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흑백시대의 사진가의 변이다.

디지털이란 편한 기계를 이용해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사진은 생각조차 해서 안 될 것인데 마치 당연한 한 장르로 탄생시킨다는 것은 사진을 사진답지 않은 행위로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행위는 결국 사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디지털을 이용한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작업으로 구성된 작가들도 색다른 사진세계를 보여주고 있어 요즘 사진계에 화제가 된다는 소식도 있다. 이들은 디지털이란 편한 기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타입의 아티스트영역을 구성하고 있어 사진계의 대변화로 평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진가들이 해외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2007년 11월 뉴욕 소더비에서 한국의 사진가 배병우의 소나무 작품이 무려 6,000만 원에 팔려 화제가 됐고, 또 구본창도 유럽 등지에서 높은 가격에 사진을 팔고 있다. 이제는 한국 사진가들도 세계 사진 시장에서 고액의 작품료를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작품이 위작형태의 사진이었다면 세계시장에서 눈길을 끌 수가 있었을까.

2. 전환기를 맞은 제주사진계

앞서 걱정했던 것은 한낱 기우이길 바라며 이제 제주 사진계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야 할 때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진가들의 활동은 풍요로운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표현방법에 있어서 이전 세대의 사진가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자유 분방하고 세련된 감각을 가진 사진들이 하루가 다르게 선보이고 있다.

제주에서도 최근 발표한 사진전을 보면 박훈일 개인전(1. 12.~1. 17.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이하, 문예회관 제2전시실) 문미진 개인전(3. 7.~3. 6. / 문예회관 제2 전시실), 김옥선 '해피투게더' 아트스페이스 초대전(4. 21.~5. 6. / 아트스페이스·씨), 백은주 프랑스 아를르 사진축제참가(7. 3.~9. 16.) 제주디지털카메라정기전(9. 30~10. 3) 제주디카 사랑 제4회 사진전(10. 27.~10. 29.) 등이 새로운 시각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과거에 틀을 과감히 벗어난 사진세계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제주사진계도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변화의 바람을 안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또는 젊은 사진가들에 의해 새로운 사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리 큰 변화를 이루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변화의 틀을 과감히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간 일으킨 변화의 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단편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도와 행위는 뜻 깊다 하겠지만 이들을 지켜보는 사진가들의 관심이 문제다.

새로운 사진세계를 일으켜 보려는 젊은 사진가들의 시도를 기존 작가들이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면 지금의 제주 사진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에는 기존 작가들의 관심이 젊은 작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관심은 의욕을 잃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 지금 제주사진계는 신·구가 함께 공존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이다.

사 진

제사진전을 많이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제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소재, 오름이나 해녀 등을 회원들이 1년 또는 2년간 집중 촬영하여 전시를 한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은 기록으로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직 사진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2007년에 열린 주요 단체전을 살펴보자. 제주카메라클럽의 「제주포구전」(1. 2.~1. 12.)이 한라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제주 곳곳의 포구들을 한자리에 모은 사진전으로 제주인의 삶과 역경을 고스란히 말해주며 제주의 옛 시절을 추억케 하는 전시였다.

제주카메라기자회 보도사진전이(1. 18.~1. 22.)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다섯 번째 마련된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기자들이 촬영한 생생한 현장감을 엿볼 수 있는 현장 사진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3위령제 대통령 참석, 2007년 한 해 동안 제주 섬을 뜨겁게 달군 여러 사건현장 사진들이다.

제6회 제주민속사진전이(3. 19.~3. 23.)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희미해져 가는 제주의 문화유산들로 초가지붕을 있는 사람들, 뿌리 깊은 당신앙의 모습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흑백사진 50여 점이 전시됐다.

탐라사진가협회는 「4·3의 증언전」(3. 31.~4. 5.)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었다. '恨의 증언', '59년만의 증언', '죽어서도 말한다' 등 강렬한 화면이 보는 사람을 사로잡았다.

해녀박물관 개관기념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 사진전이(4. 4.~4. 30.)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렸다.

제15회 오름사진 연구회전(5. 2.~5. 7.)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주 오름들의 신비로움을 전시했다. 이외에도 여러 단체전이 개최되었지만 기술은 생략한다.

개인전으로는 이창훈 「제주 동자석전」(1. 12.~1. 17.)이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4년 동안 도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촬영한 동자석과 석물, 제주 분묘 등 2백여 점을 전시했다.

17.~3. 22.)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었다. 진흙 속에서도 고귀한 아름다움을 갖춰 불교에서 욕망과 세속을 이겨낸 상징물로 추앙받는 연꽃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사진전이였다.

한때 신문사 사진기자로 활약하다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됐지만 절망에 굴하지 않고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사진을 찍는 ‘오뚝이 작가’ 광상필이 「상필이가 만난 사람 Ⅷ, 외국인 근로자」 사진전(4. 1.~4. 7.)이 제주국제공항로비에서 열렸다. 「상필이가 만난 사람」이란 타이틀 아래 꾸준히 작품전을 열어온 그가 만난 이주근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선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경 또는 인종을 초월한 사랑, 국제결혼 커플을 향한 사회의 배타적인 시선을 표현한 김옥선의 「해피 투게더」 사진전이 아트스페이스·C에서 열렸다. 홍익대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는 그동안 ‘아름다운 여체’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누드’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고, 2004년부터는 동성커플에까지 앵글을 확장해 ‘다름과 차이일 뿐 비정상과 부조화의 테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우리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유웅·이애숙 부부의 「어린이를 위한 바닷속 물고기 사진전」(5. 1.~5. 31.)이 한라수목원에서 열렸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선보인 수중세계의 신기한 자태는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부는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며 제주 서귀포해안을 비롯한 동남아 수중세계까지 보여줬다.

제주출신 양종훈(상명대 영상학부 교수)이 「히말라야로 가는 길」이란 다큐멘터리 사진전(5. 9.~6. 2.)을 서울 우리은행 본점 은행사 박물관 갤러리에서 개최하였다. 양종훈은 그동안 호주 원주민의 삶, 인도네시아, 여군 훈련병 모습 등 다큐멘터리 사진전을 계속 열어왔다. 그는 「히말라야로 가는 길」에서 “히말라야의 풍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트래킹 중간 중간 만난 마을에서 느꼈던 티벳불교의 가르침은 또 하나의 마음의 트래킹이었다.”고 말했다.

4. 정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의 본질은 기록성이다. 제주사진제도 2007년에 많은 클럽전과 개인전이 열렸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으며 그때 새로운 사진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요구는 전에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2007년에 가진 전시 중에서도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구상, 새로운 창작사진들이 관객들 속으로 전달됐다. 사진은 순간순간 이뤄지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머물 수 없는 순간을 포착하며 사진이란 틀 속에 담아놓는 것이 사진가들이 해야 할 의무란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일이다.

2007에도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 개의 단체에 2,000~3,000명의 사진가들이 활동하며 수많은 사진을 쏟아냈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부족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조금하게 변화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우선 선배와 후배간 대화의 필요성, 사진가들의 사진에 대한 관심, 우리 사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록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많을 것이고, 미처 찾아보지 못한 사진행사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사진인들의 단결된 마음으로 제주사진의 앞날을 밝혀 갈 때다.